

후기 근대사회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에 대한 탐색 - 대학생들 중심으로

안주희

이 연구는 후기 근대화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불안과 강박에 대해 탐색한다. 특히, 후기 근대로의 변화가 청년 세대의 불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롭게 형성된 유형의 불안이 강박징후라는 특정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후기 근대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청년 세대의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불안이 강박적 징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후기 근대사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 연구대상의 특정 요소가 불안을 매개로 강박적 징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불안감, 강박징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후기 근대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여겼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았다. 둘째, 불안감 형성의 경우, 사회불안의 수준이 실존불안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실존불안의 경우 응답자들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로 설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후기 근대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뢰가 낮을수록, 불안감과 강박징후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박징후에 대한 불안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과 신뢰는 불안을 매개로 하여 강박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강박징후, 실존불안, 사회불안, 후기근대

1. 서론

2002년 초반기에 ‘디씨페인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페인’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잠수를 타거나’ 자신이 해야 하는 다른 일들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만 둘 수 없는 반복의 늪에 빠져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는 청년기를 보내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낯설거나 생경한 풍경은 아니다. “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정신 병리 현상은 비정상이나 일탈이 아니라 그 문화의 특징의 표현이며, 특히 그 문화의 많은 잘못된 것의 결정체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화의 자가 진단과 검사의 열쇠로서 정신 병리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Bordo, 2003)”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오늘날 대학생들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강박적 증상²⁾은 현대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변화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현재 대학생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특성을 ‘후기 근대성’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후기 근대가 갖는 재귀적 특성과 관련 있다. 한 사회가 자기 재귀적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의존할만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전통이나 권위 등 외부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 1) 디씨페인이라는 용어는 디시인사이드라는 디지털카메라 전문 사이트에서 생겨났다. 디시인사이드내의 갤러리란 중에 ‘엽기 갤러리’란이 있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성사진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곳에서는 여러 합성사진들뿐만 아니라 ‘행자’, ‘본좌’ 등 새로운 유행어들을 쏟아냈다. 이곳에 사진을 올리고 써핑을 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일들을 미루고 심지어 식사조차 컴퓨터 앞에서 하며 며칠을 씻지 않은 채로 있는 모습이 디씨페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 2) 강박이란 대표적인 불안장애중 하나로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불안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의미한다. 강박장애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분류되었으나, 1988년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ional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 Study를 통해 정신과 질환들 중 공포증, 물질사용장애와 주요 우울증 다음으로 4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확인되었다.

한다(Giddens et al., 1994). 따라서 후기 근대사회를 사는 개인은 원자화된 개인을 지칭하는 근대시대의 '개인화'를 넘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삶을 구성하고,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기준조차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지 못하고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같이 한 개인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 후기 근대사회에서 내리는 이러한 결정들이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매체를 통해 매개된 경험이 증가하고 삶의 가능성들이 다원화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선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권위들이 취약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가치체계나 질서가 흔들리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경쟁의 강화는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이러한 삶의 선택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강압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은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ayette, 2004).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불안이 후기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유형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수준에서 인식되어야 할 불안임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신병리학적으로 불안장애에 포함되는 강박적 증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질문지를 통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불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강박징후를 조사하여,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불안의 유형과 강박징후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힐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거시적 사회호

름으로서의 후기 근대화라는 문명사적 전환이 미시적 수준의 강박적 행위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불안유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문헌고찰

1) 새로운 세대와 불안에 관한 논의

386세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성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 공간과 정보를 자신의 삶의 자연스런 조건으로 여기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쟁 강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박길성 외, 2005). 또한 최근의 대학생들은 거시적인 주제들보다 개인의 일상이나 진로 등 자신의 삶의 관리에서 오는 문제를 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평길, 2006). 최근의 개인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개인들의 '사적 자기관리 주체'로의 변화는 이들의 불안의 결과인 동시에 이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역시 지적되고 있다(Žižek, 1999). 물론 근대 이후의 청년들은 언제나 미래라는 불확정적인 시공간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기 근대 시대의 청년들은 보다 개인화되고, 가치기준의 근간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기 삶의 다양한 측면을 스스로 관리해야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극단화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에 놓여있다.

시대나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불안은 사회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사회학에서 연구되어왔다. 사회불안의 객관적 대상(정치불안, 경제불안, 북한문제 불안, 노사문제 불안, 교육불안, 빈부격차 불안)을 구체화한 연구(이훈구, 2004; 박수애·송관재, 2005)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특성들(예측불가능성, 이동불가능성, 불공정성, 통제불가능성, 불확실성, 불신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홍영오 외, 2006)들이 대

표적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이러한 불안이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사회불안 역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대상으로 보고 사회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서 지각되는 특성(통제감 상실, 공정성 불신, 개인 취약성)에 따라 구체화한 연구(최인철·김범준, 2005)가 새롭게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범주안에는 불안의 원천이 '우리(사회, 공동체)'에 있는 것과 '개인(생애)'에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안의 원천이 '우리(사회, 공동체)'에 있는 경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실존'에 불확실한 위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위협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사회의 실존에 대한 위협이란 사회의 존재 자체, 즉 그 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 등이 위협하거나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박수애·송관재, 2005).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불안들은 개인적인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불안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최근 부각되는 환경, 생태, 전쟁, 테러리즘 등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형성된다. 이러한 위협이 극대화되는 가정적 상황에서 표출되는 위협인식은 '사회가 망할 것이다'라고 인식되는 공동체의 파괴와 종말에 대한 불안이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존'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불안의 원천이 '개인(생애)'에 놓인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불안은 개인이 삶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며 개인적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위협은 취업, 결혼, 이혼, 출산 등 개인이 생의 주기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극대화되었을 때 표출되는 위협인식은 개인의 실패와 파멸, 죽음에 대한 불안을 형성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적 실존에 대한 불

안은 심리학계에서 논의 되던 개인의 임상적 불안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개인의 불안은 특수화된 개인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불안인데 반해 여기서 논의하는 개인의 실존적 불안이란 사회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성격을 갖는다(이재열, 2005).

2) 강박징후에 관한 논의

프로이트가 전통에서 근대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강박행동’ 또는 ‘강박관념’을 발견한 것은 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주요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반복행동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방식이며 낮은 가치 또는 삶의 양식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는 무의식적 충동(강박충동)(Freud, 1976)”을 의미한다. 기든스 역시 강박적 행위를 “전통주의 없는 전통(Giddens, 1991)”이라고 표현한다. 집합적 기억을 조직하는 매개체로서 전통은 인간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적·반복적 생활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전통이나 권위가 제공하는 가치의 정당성이나 효용성이 후기 근대화에서 의해 의심받게 됨에 따라서, 취업·결혼·출산 등의 당연시되던 삶의 과정들은 이제 계산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결정해야하는 불안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은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과도하게 특정 생각이나 물건에 집착하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지면서 이는 강박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듯 강박적 행위는 후기 근대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의 축과 개인화된 주체의 존재론적 안정성의 추구라는 축의 교차점에 서있다.

의학적으로 강박장애는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을 반복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지칭한다. 정신의학계의 강박장애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뉜다. 심리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두

고 있느냐에 따라 역동정신의학, 학습이론, 인지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역동정신의학적인 입장에서는 강박 장애가 강박적 인격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DSM-III의 도입으로 인격장애의 객관적 진단기준이 마련된 이후의 연구들은 강박성 인격이 강박장애의 발생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합의되고 있다(Hollander, 1993). 학습이론에서는 환경 자극이 일단 불안이나 공포를 동반하게 되면 이러한 자극에 대해 불안이 조건형성되어지고, 형성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행동을 통해 불안이 감소되면, 강박적인 행동은 강화가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이광현, 2000). 인지이론에서는 강박장애를 가진 이들의 독특한 인지 분야를 분석하는데, 특히 행동의 속성을 의심하고 완벽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강박장애의 핵심이다. 이는 개인의 성향에 의한 고유한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적 차원의 완벽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맥락이 강박장애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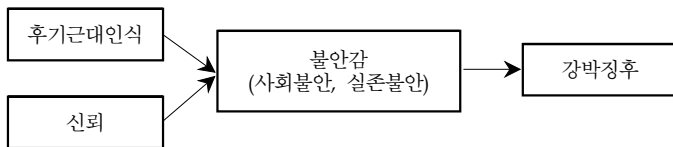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후기 근대화의 진행은 개인의 임상적 불안이나 사회불안과는 다른 새로운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개인적인 관리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실존 혹은 존재론적 안정감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불안은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 역시 지적하고 있다(Riemann, 2004; Giddens, 1991).

개인에게는 ‘뜻하지 않은 사고’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연성을 갖고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강박징후의 증가는 사회적이며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후기 근대화라는 거시적 변동이 강박징후라는 미시적이고 특수화된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연결되는 중간적 개념으로서 불안감의 형성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의 틀과 주요 변수를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1: 후기 근대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정도는 불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불안감의 형성은 강박적 징후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3: 불안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후기 근대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 연구대상의 특성적 차원의 요소가 불안감을 매개로 하여 강박적 징후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의 주요 변수의 구성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논문에서는 후기 근대적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이 불안과 강박적 징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 선정과정은 무작위 추출이 아니고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서울시내 소재 3개 대학 중에서 학과와 학년이 고르게 분

포되었다고 기대되는 5개의 수업을 선택하여, 강의진행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그러나 한 수업의 경우 연구자를 대신하여 강의진행자에 의해 배포·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455부이었으며,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에 충실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총 431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강박장애의 발병률에서의 차이³⁾를 고려하여, 성비에 차이를 두고 할당하였으며, 총 431명의 연구 대상 중에서 여성은 327명(75.9%)으로 남성 104명(24.1%)에 비해 약 3배 정도이다. 전공대학의 경우 사회대학이 36.7%로 실제 대학내의 학생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표집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대규모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소규모로 조사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임의표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임의적 표집의 분포가 이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그 결과를 일반 대학생 모두에게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불안의 형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강박적 징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탐색하는 수준의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조사의 일부 문항들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대상들인 대학생들의 표현물들을 통해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2차에 걸친 사전검사를 통해 수정하였다. 이들 문항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분석의 사전적 과정으로 주축요인 추출법과 베리벡스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3) 2001년 실시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강박장애의 발병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 이전에 높았던 발병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 증가 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이 만 20~24세부터이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르며, 발병 시기 역시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집중(전체 여성질환자의 42.0%)되어 있다.

요인화된 문항들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적 분석을 그리고 본 분석으로는 공변량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주요 변수의 구성과 측정

가.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

후기 근대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그 내용에서도 연구 주제와 분석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일반적 흐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후기 근대적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기든스의 이론(Giddens, 1991)⁴⁾에 기반해서 후기 근대사회에 대한 특징들을 문항화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문항들에 대해서 이들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어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화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총 4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삶의 다원화 인식'이라는 요인으로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요인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사회 모든 영역이 점차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성별과 같이)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역할의 의미가 약화된다'의 총 3개의 문항이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은 '선택지 증가의 인식'이라는 요인으로 삶에서 자신이

4) 기든스는 후기 근대에 개인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을 ① 탈전통적 질서(규범의 부재) ② 생활세계의 다원화 ③ 권위의 부재(경쟁하는 권위들) ④ 매개된 경험의 증가라는 하위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경로와 가능성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진다',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의 수가 많아진다', '정해진 생애주기의 의미가 약화된다'의 총 3개의 문항이 해당된다.

세 번째 요인은 '규제완화 인식'이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행동과 접근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음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총 2개의 문항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 '전통적 규범의 의미가 약화된다'가 해당된다.

네 번째 요인은 '매개된 경험 인식'이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간접적 수단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정보가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커져가고 있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인쇄매체나 통신매체를 통해 접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쇄매체나 통신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인쇄매체나 통신매체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4개 요인 구조의 총 설명량은 66.00%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665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07)의 신뢰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일반사회조사의 조사 도구인 만큼 질문의 내용이나 문항의 표현은 그대로 살려 사용하되, 문항의 수는 전체적 비율을 고려하여 10개 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그 대상을 구분하고(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이들에 대한 신뢰를 '매우 불신'부터 '매우 신뢰'에 이르기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화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총 4개의 요인에 중 첫 번째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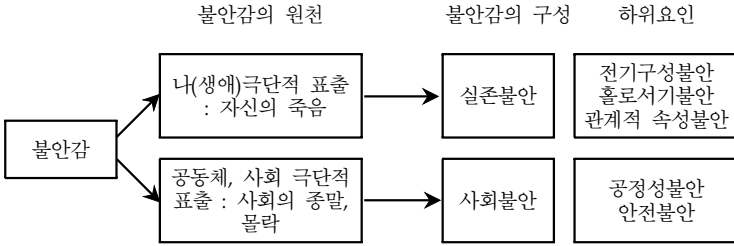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수준에 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들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요인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신뢰’라는 요인으로 거시적 수준의 단체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영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낮은 기관들에 대한 신뢰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가까운 타자에 대한 신뢰’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사적인 관계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낮선 타자에 대한 신뢰’로 명명하는 요인으로서 특정 관계를 맺지 않은 불특정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이들 4개 요인구조의 총 설명량은 55.52%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774로서 양호한 편이었다.

다. 불안감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에 기인하는 인식론적인 요소들은 ‘실존 그 자체’, ‘타인의 실존’, ‘전기의 연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할 때 실존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실존 불안의 대상이기도 하다(Giddens, 1991; 정준영, 1998). 후기 근대사회로의 가장 큰 변화로 이 논문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소들에 대한 ‘개인적 관리(후기 근대의 개인화)’이므로 이에 맞추어 각 요소들을 문항화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표현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삶의 과정과 고민들에 대해서 쓴 글들을 참고하였다. 하위 3개의 요인은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개의 문항 중 2개는 긍정적인 표현을, 2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불안’ 변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활용하였다. 검사도구를 살펴볼 때, 최인철(2005)의 검사도구는 다른 연

구들에 비해 사회불안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었으며, 검사도구의 활용을 고려하여 단축형 검사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인철(2005)이 제시한 단축형 검사도구를 활용하되, 보다 사회불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그 문장의 의미가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는 '개인 통제감 상실', '사회 긍정성 불신', '개인의 취약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각각 3개씩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요인화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전기구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연속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전기(傳記)를 관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요인은 '홀로서기 불안'이라는 요인으로 개인들이 '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상황에 대한 공허감 그리고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공정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요인으로서 사회의 운행 원칙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요인은 '관계적 속성 불안'이라는 요인으로 개인이 자신의 대인관계로부터 충분히 자신의 실존적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안전 불안'이라는 요인으로서 개인이 각종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 문항들이다. 이들 다섯 개의 요인들은 전체적으로는 '불안감'에 포함되는 요인들이지만 그 내용상 요인 1, 요인 2, 요인 4는 실존불안에, 요인 3과 요인 5는 사회불안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요인화 되었다. 이들 5개 요인구조의 총 설명량은 60.15%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856로서 양호한 편이었다.



<그림 2> 불안감의 구성 요인

라. 강박 징후의 측정

이 논문은 강박적 징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1>에서 강박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K장의 K1부터 K21번까지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도구인 만큼 단어의 선택이나 언어의 사용이 이 연구에도 적합하다고 여겨 질문 문항의 표현은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진단 기준 A에 해당하는 질문이 역학조사도구에서는 병적인 사고와 행동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 연구의 초점이 병적 진단이 아니라 강박적 징후의 정도에 있는 만큼 이를 좀 더 완화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5) K장의 K1부터 K21번까지의 질문 문항은 다음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진단기준A는 1문항, 진단기준B~D는 2~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다음> 강박장애의 필수증상은 반복되는 강박적 사고나 행동으로서(진단 기준 A), 이들 증상이 많은 시간을 소모하거나(예: 하루에 1시간 이상) 현저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진단 기준 C). 이 장애가 경과하는 어느 시점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강박적 사고나 행동이 지나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한다(진단 기준B). 물질(예: 남용 약물,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진단 기준 D). 실제 역학조사 설문에서는 강박적 사고 부분과 강박적 행동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의 측정방법은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 부분 어느 하나에라도 '강박 장애' 진단 기준들을 만족하면 '강박 장애'로 분류된다. 조사는 예/아니오의 이분형 질문으로 진행되는데, 진단기준 A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계속하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하나 이상 '예'로 응답하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표 1> 강박 진단 질문 변경 사항

	역학조사의 측정 문항	이 연구의 측정 문항
강박 사고 부분	<p>다음에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웠던 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p> <p>예를 들어, 손이 더럽다거나 병균이 묻어있다는 생각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불쾌한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p> <p>또 다른 예로는 나는 정말 바라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는 창피한 내용이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쾌한 생각이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까?</p>	<p>귀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떨쳐버릴 수 없이 계속 떠올라서 2주 이상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p>
강박 행동 부분	<p>어떤 사람들은 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씻거나, 문을 잠갔는지 또는 가스를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즉, 어떤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p> <p>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순서대로 해야되고, 순서가 틀리면 다시 해야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p> <p>바닥의 타일이나 벽돌 같은 것의 개수를 세야만 한다고 느끼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세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몇 주간 계속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p> <p>큰 소리든 혼자 말이든, 어떤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던 적이 있었습니까?</p>	<p>다음 예문을 읽고, 아래 문항에 차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p> <p><예문></p> <p>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게임, 소비행위, 머리카락 뽑기, 손톱 물어뜯기, 폭식, 섹스 등 특정 행동을 과하게 반복해서 합니다.</p> <p>또는 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씻거나, 문 또는 가스를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합니다.</p> <p>또는 어떤 행동을 일정한 순서대로 해야 되고 순서가 틀리면 다시 해야 하거나, 타일이나 벽돌 같은 것의 개수를 세야만 한다고 느끼거나, 어떤 말을 반복해서 되뇌거나 합니다.</p> <p>귀하는 위 예문에 해당하거나 혹은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고 반복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알코올, 니코틴 등 생리적 효과에 의한 행동 제외)</p>

이 연구에서도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진단기준 A를 이분형으로 질문하여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 조사를 계속하였으며, 나머지 진단기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여, 각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 중 최고 점수를 선

택하여 그 기준의 대표점수로 할당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이 논문의 목적이 병적 치료 수준에서의 진단이 아니라, 강박징후의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고, 진단기준 B~D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행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이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하나 이상 '예'로 응답하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측정된 각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점수의 평균값을 강박적 징후의 정도로 계산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측정 및 관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후기 근대의 사회변화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평균 3.97 표준편차 0.37로, 98%이상이 보통(3점)보다 높은 정도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이 다양한 선택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높은 정도의 동의를 보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삶 역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면 매개된 경험에 대한 인식(평균 = 4.28)이 가장 높았고, 규제완화(평균 = 4.03), 선택지의 증가(평균 = 3.85), 삶의 다원화(평균 = 3.84)의 순서대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실존불안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 2.70점으로 전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실존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경우 불안의 정도는 평균 3.68점으로 높은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최인철,

2005) 상대적으로 응답자간 동질적인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실존 불안의 경우 불안 형성의 과정이 주로 개인 사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실존불안(표준편차 = .71)의 경우 사회불안(표준편차 = .55)에 비해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존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7%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원천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분석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개인적 성격의 것을 사회적 속성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혹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표 2>를 통해 실존 불안 하위 요인과 사회불안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의 불안은 그 하위요인들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두 불안간의 관계는 단지 개인적 불안이 사회적으로 집적되어 사회불안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불안감을 느끼는 개체로서 개인 안에서도 개인의 존재론적 문제와 관련되는 '실존적 불안'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 불안'의 형성이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실존불안 하위 요인과 사회불안 하위 요인과의 관계

	실존 불안			사회 불안	
	(1)전기구성불안	(2)홀로서기불안	(3)관계적 속성불안	(4)공정성불안	(5)인성불안
(1)	1				
(2)	.502***	1			
(3)	.527***	.536***	1		
(4)	.186***	.350***	.214***	1	
(5)	.165***	.258***	.171***	.034***	1

* p < .05, ** p < .01, *** p < .001

불안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실존 불안과 사회 불안이 강박징후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불안($\beta = .136$)에 비해 실존불

안($\beta = .217$)이 강박징후의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존속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의 해소 지점도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반면, 실존 불안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는데서 발생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의 해소 지점을 찾기 위해서 쉽게 개인의 관리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화를 증가시키는 후기 근대화의 사회적 흐름은 강박징후의 정도를 높이는 사회구조적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강박 징후의 정도를 측정된 결과 강박징후 정도는 평균 2.79, 표준편차 1.79로 전체 응답자의 강박징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7.1%에 해당하는 이들은 반복되는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반복되는 강박적 사고나 행동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301명의 학생들 중에서는 83.76%(263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들로 인해서 보통이상(평균 = 3.99)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는 강박징후가 있다고 보고되는 학생들의 강박적 행동과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강박적 행동의 경우 인터넷(41명), 머리카락 뽑기(30명), 손톱 물어뜯기(29명), 게임(27명), 폭식과 구토(24명), 일상행동 반복확인(23명), 문단힘 확인하기(22명), 과소비(18명), 손씻기(15명), 순서대로 절차에 맞춰서 행동하기(15명), 가스 밸브 확인하기(13명), 숫자세기(8명), 경계선 회피(4명), 전기제품 확인하기(3명), sex(3명), 정리하기(2명), 운동하기(2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 중 일상행동 반복확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제를 제출하거나 출석 확인하기에 체크를 할 때면 반드시 8번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5번을 뒤돌아보며 확인해야 한다거나, 과제나 글 등을 쓴 후에 30번을 다시 체크해야 한다거나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단힘 확인이나 가스 밸브 확인 역시 일상적 행동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

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역시 일상적 행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일상행동 반복 확인(61명)은 인터넷(41명)보다도 더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강박적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Hollander, 1993).

강박적 사고에는 미래나 진로에 대한 생각(51명),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40명), 실패에 대한 생각(38명),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11명), 시험이나 성적에 관한 생각(9명), 사회에 대한 생각(5명), 돈에 대한 생각(3명)들이 보고되었다. 강박적 사고의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학적 진단에 의해 강박장애로 분류되는 보고들에 비해 매우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다른 삶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는 강박적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박적 사고를 분류하는 주요 초점은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양상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관한 생각이나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일상의 영역으로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위험관리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일상적 행위나 생각 그리고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강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후기 근대사회의 강압을 보여준다.

2) 강박징후에 대한 경로분석

앞에서는 현대 대학생들에게 강박징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유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이 논문의 주요 문제의 식인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불안감의 형성이 강박징후의

정도를 강화시킨다는 논리적 가정에 대한 논의를 더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강박징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불안감의 구성에 의한 매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LISREL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간 감마(γ)와 베타(β)값을 살펴보는 단순 PATH모형을 통해 강박징후의 정도에 대한 직접, 간접, 전체 영향을 분리시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인들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강박징후는 불안감, 후기 근대인식, 성별과는 정적인 상관(각각 $r = .282, p < .001, r = .097, p < .05, r = .074,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감이 높을수록, 후기 근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강박징후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 종교유무, 현재 경제적 수준은 강박징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안감과는 부적인 상관(각각 $r = -.298, p < .001, r = -.106, p < .05, r = -.188, p < .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뢰가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현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강박징후와 인과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LISREL 추정결과

변 인	(1)	(2)	(3)	(4)	(5)	(6)	(7)	(8)
(1)강박징후	1							
(2)불안감	.282**	1						
(3)후기근대인식	.097*	.063	1					
(4)신뢰	-.080	-.298**	.055	1				
(5)성별	.074*	.097*	.054	.025	1			
(6)교육단계	.071	.032	.053	.025	.375	1		
(7)종교유무	-.034	-.106*	.026	.096**	.140**	-.041	1	
(8)현재경제적수준	-.032	-.188**	.014	.076	.100	.071	.104	1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이 강박징후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결과를 아래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감($\beta = .286$)은 강박징후의 정도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강박징후의 정도에 대해 직접영향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는 강박징후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안감에 부적인 영향($\beta = -.27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박징후의 정도에 대한 억제변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안감을 매개로 하였을 때, 신뢰가 강박징후정도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 = -.080$)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불안감을 매개로 강박징후의 정도에 영향($\beta = .051$)을 미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강박징후에 직접 미치는 효과($\beta = .112$)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기근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감과 강박징후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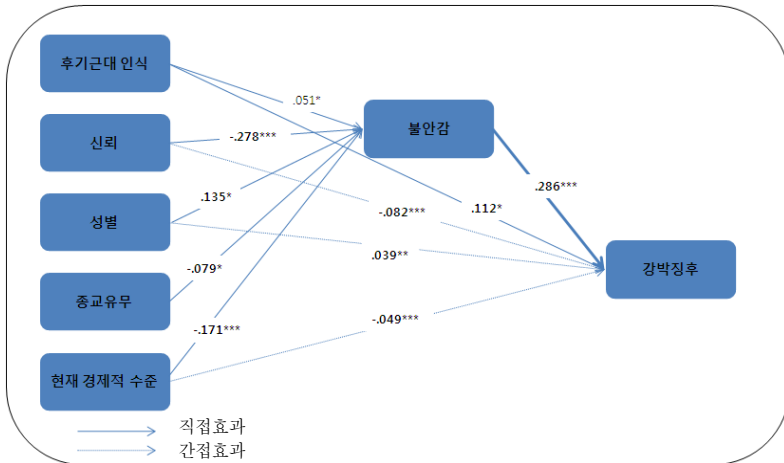
통제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들은 모두 강박징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매개로하여 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여성($\beta = .135$)일수록, 종교($\beta = -.079$)가 없을수록, 그리고 현재 경제수준($\beta = -.171$)이 낮을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며, 불안감을 매개로 강박징후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후기근대인식과 신뢰가 불안감을 매개로하여 개인의 정신적 상태의 발현으로서 매우 특수하며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 강박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미시적이고 개인의 특성적 불안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특성을 지닌다. 즉, 개인의 심리적 토대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표 4> 인구사회변수 통제 후 강박징후의 인과요인에 대한 LISREL 추정결과

		불안감의 정도			강박징후의 정도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
매개 변인	불안감				.286***	-	.286***
독립 변인	후기근대 인식	.051*	-	.051*	.112**	.015	.126*
	신뢰도	-.278***	-	-.278***	-.003	-.080***	-.082*
통제 변인	성별	.135*	-	.135*	.022	.039*	.061
	교육단계	.000	-	.000	.047	.000	.047
	종교유무	-.079*	-	-.079*	-.009	-.023	-.031
	현재경제수준	-.171***	-	-.171***	.016	-.049***	-.033

-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 계수에 대한 검증임
-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그림 3> 강박징후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적 경험들과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감은 후기근대인식과 신뢰라는 매우 사회적인 차원의 개념과 강박징후라는 개인의 특수한 행위경험의 차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불안 수준과 강박징후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후기 근대사회

를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론적 논의에서 후기 근대로의 가속화가 개인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개인들을 사적 자기관리 주체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든스나 벅이 성찰적 근대화의 진행 결과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성찰적인 개인들’ 역시 개인화로 인한 불안에 허덕이며 자기 관리에 전착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하상복, 2006).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타자를 대면하는 개념으로서의 신뢰가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하게 불안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5. 논의

이 논문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불안의 개념이나 사회불안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느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학생들은 IMF이후 전지구적 차원의 무한 경쟁 논리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언제나 확실한 결정을 통해 미래 자신의 삶을 기획하기를 강요받거나 혹은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삶의 변화와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바로 후기 근대로의 변화이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잘 기획해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존재론적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였던 전통, 연대, 권위, 가족의 의

미는 점차 허물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화’와 ‘전통과 권위의 소멸’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는 매우 모순적일뿐만 아니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불안의 존재를 외면하고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거짓된 안정이나마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강박징후를 야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후기 근대사회가 양산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안으로서 실존 불안을 포함하는 불안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불안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후기 근대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불안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불안감이 강박징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모두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실제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았다. 불안감의 하위요소에서 전반적으로는 사회불안의 수준이 실존불안의 수준보다 높았지만 실존불안의 경우 응답자들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로 설정된 주요 변수들간 관계를 정리해보면, 후기 근대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뢰가 낮을수록, 불안감과 강박징후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징후에 대한 불안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뢰는 불안을 매개로 하여 강박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근대 인식은 불안을 통해 매개되는 것과 동시에 강박징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해 볼 때, 향후 한국사회의 후기근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청년들의 불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강박징후의 증가라는 사회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 신뢰는 불안과 강박징후의 정도를 유의

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후기 근대로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강박징후에 대처하는 방법은 '신뢰'를 통해 그 해결 지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이 연구의 표본선정은 임의 표집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조사 도구가 보다 세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논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인적 수준이나 심리적 현상으로서만 논의되던 불안과 강박징후를 후기 근대사회라는 거시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은 불안과 강박징후를 개인적·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넘어서 사회심성 구조로서의 불안과 강박징후를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상욱 외.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집문당.
- 박수애·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한국심리학회.
- 보건복지부. 200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1』. 서울: 국립서울정신병원.
- 이광현. 2000. “강박장애의 심리학적 원인”. 『생물치료 정신의학』 6(2): 238-247.
- 이재열. 2005. “한국사회 위험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 5-32.

- 이훈구. 2004.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안녕: 사회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서울: 법문사.
-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제8집.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p. 87-125.
- 정준영. 1998. 정체성 논의에 대한 Norbert Elias의 문명화과정론의 사회학적 함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인철·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한국사회의 방송, 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인철.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평길. 2006. 『P세대: 대학생 진화론, 실용과 세대의 코드를 읽는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하상복. 2006. “대타자의 붕괴와 탈근대 주제: 슬라보예 지젝의 이론과 돈 드릴로의 『마오 2』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8): 95-119.
- 홍영오·송관재·박수애·이혜진·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한국심리학회.
- Bordo, Susan. 2003.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오복 역.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페미니즘, 서구문화, 몸』. 또 하나의 문화.
- Freud, S. 1976.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W. Norton. 황보석 역. 1997.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laiфона: Stanford University press(『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역. 1997. 새물결).
- Giddens, A., U. Beck & S. Lash. 1994. *Reflective Modernization*. London: Polity press(『성찰적 근대화』. 임현진·정일준 역. 1998. 한울).

- Hollander E. 1993. 『Obsessive-Compulsive Related Disorders』 pp. 1-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Riemann, F. 2004. *Grundformen der Angst München: Basel Kernmatenstr.* 전영애 역. 2004. 『불안의 심리』. 문예출판사.
- Sayette, M. A. 2004. "Self-regulatory Failure and Addiction". pp. 447-465 in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edited by R. F. Baumeister & K. D. Vohs. New York: Guilford.
- Žižek, Slavoj. 1999.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이성민 역. 2005.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안주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8. 12. 31. 접수; 2009. 5. 27. 채택]

